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최대중 부의장 박경희 체제 출범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최대중



포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박경희

포천시의회는 지난 8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제8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4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제4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화현면 출신의 최대중 의원(사진)이 부의장에는 영북면 출신의 박경희 의원(사진)이 각각 당선됐다. 이날 임시회 의장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3차 투표까지가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최대중 의원이 7표, 이흥구(소흘읍)의원이 6표, 최병덕(일동면) 의원이 1표를 각각 얻어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했다.

2차 투표는 14명중 최대중 의원이 7표, 이흥구 의원이 7표를 각각 얻어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해 결선투표인 3차투표를 실시했다.

3차 투표에서는 최대중 의원이 7표, 이흥구 의원이 6표, 무표 1표가 나와 다수득표자인 최대중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이날 의장에 당선된 최대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의의 경쟁에서 아쉽게 탈락한 이흥구 의원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당선 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당선된 최대중 의장이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나가자 의장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이흥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성원이 안돼 정회를 선포했다.

숙개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박경희 의원이 12표, 김영오 의원이 2표를 얻어 박경희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박경희 부의장은 인사

말을 통해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후반기에도 시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생활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은 9일 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 김영대 의원(내촌면, 사진)을 행정자치위원장에 이천목의원(선단동, 사진)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으며 운영위원장은 13표를 얻어 선출됐고 행정자치위원장과 산업도시위원장은 14표 만 장일자로 선출됐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김영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이중호
포천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이천목
포천시의회 후반기 산업도시위원장

신임의장 취임소감 및 향후계획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3년! 짧은역사 속에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여 육동자를 맞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듯이 이제 포천시 의회는 그 과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다. 님께, 경기동북부에 위치한 포천시를 각종 규제와 부족한 인프라, 낮은 재정자립도, 남북경협시대,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 광역도로망 확충,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광역상수도 시설, 문화관광 인프라

같이 공유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게, 포천시 의회는 먼저 불타지 않으면 남을 불태울 수 없다는 인식을 하면서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못하듯이 완벽한 포천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포천시 의회는 지금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자기진단을 올바르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15만 포천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포천시의회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늘푸른 포천시 21C 자족형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4대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만 포천시민의 대들리는 가난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풍요와 희망복지 포천시를 만들 것인가 15만 시민의 무언의 바램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또한 급진적인 개혁의 변화를 통하여 살맛 나는 아름다운 포천시 밑그림을 시민 여러분은 지금 요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시민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둘째,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정신 그 하나 뿐입니다. 셋째, 15만 포천시민과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포천시 정책을 시민중심으로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축,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포천시 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발전이라 함은 빈부, 남녀, 청소년, 도시와 농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장애인, 노인복지, 지역이 특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포천시를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인삼, 사과, 한우, 특화작품개발 및 브랜드화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WTO, 뉴라운드, 아젠다 협정,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국제경쟁력 우수확보를 위한 농축산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일곱째, 포천시 의회는 방문 현장 주민의 의견 청취, 크고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화합과 포용으로 시민의 바램을 절대적으로 수용해나가겠습니다.

여덟째, 포천시 의회는 집행부와 상생의 바탕을 근간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적인 포천시의회의 운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어려운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공판넬은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포천시가 더욱 변화하고 젊어져야 하기때문에 영감이 아닌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21C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포천시민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많은 애정을 기대합니다.

프로필

- ◇학력
- 일동상업고등학교 졸업
- 주요경력
- 포천축산협 협동조합 감사
- 일동농협협동조합 감사
- 화현면 체육회장
- 청소년 지도위원장
- 화현면 이장협의회회장
- 지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포천군 의회 3대 의원
- 포천군 의회 내무위원장
- 제4대 포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이한동 의원 23년의 정치생활 마감



"영원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가 불초 이한동 지난 5월 29일로 23년간의 정치적 소임을 다하고 오늘 눈물 젖은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 형제자매 여러분에 대한 저의 고마운 마음은 무덤 속에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고향의 흙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23년 간 저는 고향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당당한 포천시가 되는데 가장 큰 동력은 뛰니뛰니 해도 43번 국도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사업 일 단게 의 정부-포천 신북간 24km는 그 당시 여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제가 전대통령을 면대 간청하여 국방부 예산으로 공사비의 반을 부담시키는 통치차원의 결단을 얻어 완공한 것입니다.

한수이북 유일의 종합대학인 대진대학, 경북대학, 중문의대 등을 유치했고, 초·중·고 교육시설을 완비하여 교육문화도

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청성문화공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일찍 마련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보전에 힘쓰고 스키, 골프, 온천 등 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무총리로 봉직하는 동안에는 포천의 상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포천을 광당상수도 구역에 편입시켜 이 사업을 금년에 준공하게 하였고, 의정부-포천간 제2의 43번 도로를 신설토록 계획을 확정시켰으며 포천문화회관 사업에 국비지원, 포천중·이동중에 종합체육관 신축 등의 사업과 43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천은 20여년 꾸준히 발전하는 가운데 인구도 15만이 되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이제 새로운 꿈을 안고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저는 남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5공 시절 조7계선의원 때 여당의 사무총장, 원내총무, 헌법협상대표, 6공 시절 3선 의원 때 정척위의장, 남북국회회담대표, 내무장관, 원내총무, 문민정부시절 4선 의원 때 원내총무, 국회의부의장, 5선 때 자민련 총재, 국무총리(2년2개월) 등으로 봉직하면서 그때 그때의 힘든 소임을 큰 허물없이 모두 수행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고장 동지들과 힘을 모아 대통령이 되어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 보겠다는 꿈을 끝내 실현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하늘의 뜻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고향의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 온 2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이제 온갖 영광과 회한으로 얼룩진 45년의 공직생활과 그 중 23년의 정치생활을 뒤로하고 저를 길러준 영원한 저의 요람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해도 그리워했던 고향의 파란 하늘빛은 영원할 것을 믿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향의 여러분!

저 또한 인간이기에 허물도, 부족함도, 서운하신 일도 많았을 것임을 잘 압니다. 이런 저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정으로 감싸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막내 강녕하심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만 불비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불초 이한동 배상

“영원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